

한국어 교육 제14권 2호 (2003)
pp. 83 - 106

일본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한국어 교육

—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의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

노마 히데키
(동경외국어대학)

국제한국어교육학회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일본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한국어 교육

—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의 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

노마 히데키
(동경외국어대학)

Noma Hideki. 2003. Korean language education of graduate school in Japan. *Journal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14-2: 83 - 106. The aim of this paper is to survey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studies of Korean language at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 Japan and to discuss some related problems. Section II outlines the present situ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Japanese universities. It has become very common for students to learn Korean in Japanese universities. Section III considers education and studies of Korean language in graduate schools focusing on the case of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hat is the most important under the present circumstances is to produce creative specialist for the Korean teaching and research profession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ostgraduate education.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제어: 대학원교육(education of graduate school), 한국어교사 (Korean language teacher), 교원(instructor), 교원의 조건 (condition of teacher), 모어별교육(education depending on native language), 교육과정(curriculum)

1. 들어가기

본고의 목적은 일본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한국어 교육¹⁾을 개관하고 이를

1) 본고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는 용어는 '비모어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가리킨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해외 거주 한국인은 한국어가 모어(native language)가 아닌 경우가 많으나 그런 경우에도 한국어

러 그 문제점을 논의하는 데에 있다. 지금까지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대학원 교육에 중점을 두고 논의하고자 한다.

2.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개관

2.1 선행연구와 선행보고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간노[菅野裕臣](1988a, 1991), 노마[野間秀樹](1995, 2001b), 하세가와[長谷川由起子](1995) 등, 이미 몇 편의 논고가 있다. 이토[伊藤英人](1999)에서는 동경외국어대학을 중심으로 전공과정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하타노[波田野節子] 외(2003)는 현립 니이가타 여자단기대학[縣立新潟女子短期大學]²⁾에서의 교육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Kanno, H. et al.(1985), 우메다[梅田博之](1987), 후지모토[藤本幸夫](1996), 노마[野間秀樹](1996b, 2002a), 그리고 정광(2001)은 한국어 연구를 개관하면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시사를 준다. 한국어 교재의 관점에서 일본의 한국어 교육에 언급을 한 논고로서는 후지이[藤井幸之助](1993), 노마[野間秀樹](1996a, 2003), 구마타니[熊谷明泰](2000), 유타니[油谷幸利](2001) 등이 있다. 노마[野間秀樹](2002b)는 교사론이다.

이러한 논고들에서 일본의 교육 현황에 관한 조감도는 얻을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고들이 아직 소개하지 않았던 부분을 발췌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는 모국어가 되기 때문이다. 즉 소위 해외 교포에게 있어서 한국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모국어인 것이다. 모어와 모국어는 확실히 구별하여야 한다. 또한 비모어 교육에 대해서 '국어 교육'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2) 일본의 '단기대학'은 한국의 전문대학에 해당되는 2년제 대학이다.

2.2 한국어 과목의 개설 수와 학습자의 증가

2.2.1 한국어 과목의 개설 수와 학습자 수

일본의 국제문화포럼(The Japan Forum)은 2003년 대학에서의 한국어 과목 개설 상황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어떠한 조사보다도 최대규모로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오구리 아키라[小栗章] 씨의 허가를 얻어, 중간 보고서에서 밝혀진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종 보고서는 2003년 말에 간행될 예정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대학 수업 과목으로서 한국어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4년제 대학교가 200개 대학, 2년제 단기대학(전문대학)이 75개 대학, 합계 375개 대학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교육재단이 실시한 1995년의 조사에서는 185개 대학이었음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그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다. 이러한 증가율은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 교육의 추세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숫자라 하겠다.

국제문화포럼 조사에 나타난 개설 과목명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	31.5%
조선어	28.8%
한글	14.0%
코리아어	7.2%
한국·조선어	4.5%
기타	14.0%

과목명을 보면, 1995년도 조사에서는 '조선어' 34.1%, '한국어' 25.4%로 '조선어'라는 과목명이 우세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한국어'라는 과목명이 '조선어'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 수로 보아도 역시 대대적인 증가 추세는 명확하다. 2002년의 국제문화포럼 조사에 회답한 대학에서만 784과목, 21,051명에 달한다. 학습자 수의 증가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올해에도

각 대학에서는 개설 수업 수를 학기초에 급히 늘리는 등, 증가한 수강생의 처리에 여념이 없었다.

2.2.2 다른 언어 과목과 한국어 과목

그렇다면 한국어 과목은 다른 외국어 과목과 비교하여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의 예로 동경외국어대학의 경우를 보자. 동경외국어대학에는 약 50개 언어의 수업이 개설되어 있다.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숫자는 2003년도 부전공 과목, 소위 제2, 제3외국어 선택 필수 과목의 수강생 수이다.

영어A	1323명		
영어B	1287명		
영어C	184명		
초급영어1	20명 (유학생 대상)		
초급영어2	61명 (유학생 대상)	영어 합계	2875명
불어A	376명		
불어B	179명	불어 합계	555명
중국어A	291명		
중국어B	151명	중국어 합계	442명
스페인어A	262명		
스페인어B	134명	스페인어 합계	396명
한국어A	255명		
한국어B	59명	한국어 합계	314명
독일어A	187명		
독일어B	72명	독일어 합계	259명
러시아어A	48명		
러시아어B	17명	러시아어 합계	65명

위 통계에서 A는 초급, B는 중급이다.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가 각각 90분 수업이 일주일에 2과목씩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본의 제2외국어

수업의 일반적인 시간 배분이다. 위의 표를 보면 한국어의 위치는 이미 러시아어를 압도하고 독일어를 앞지르며 스페인어에 육박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어나 중국어 수준에까지 머지않아 도달할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국어 강좌에는 수강생이 100명 가까이 있는 수업도 있다. 수강생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이러한 대규모 수업이 나타나는 것은 비단 동경외대에서만이 아니라, 일본 각지의 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2.2.3 한국어 학습자 수 증가의 배경

그렇다면 학습자 수의 이러한 증가 현상은 일시적인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2002년도에도 각 대학의 대폭적인 수강생 수의 증가 현상을 가리켜 일부 월드컵 현상이라고 말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강생 증가 현상을 앞으로의 기본적인 추세로 보고 있다. 그 증거로 2003년도에도 수강생 수는 늘어났다. 증가율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앞으로 적어도 5~10년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더 많아야 했던 한국어 학습자가 너무나 적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일본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는 2002년에는 577만 1,975명이었는데, 그 중 147만 2,096명이 한국인으로 국적별로는 2위 대만 약 91만 명, 3위 미국 약 76만 명을 압도하여 전체의 25.5%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³⁾ 일본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도 2002년에는 약 232만 명에 달한다.⁴⁾ 일본어 화자들이 한국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는 이미 하루에 10000명이 왕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 하나를 보아도 일본에서의 한국어 학습의 활성화 경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 국내에서의 한국에 관한 정보의 증가는 학습자 수 증가에 결정

3) 일본 법무성[法務省] 입국관리국 2003년 3월 조사. '平成14年における外国人及び日本人の出入国者統計について'. <http://www.moj.go.jp/>

4) 한국관광공사 통계. <http://www.knto.or.kr/>

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쉬리'를 비롯한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⁵⁾ K-pops라고 불리는 한국가요에 대한 관심은 최근 들어 특필할 만한 사항이다. 한국인 가수가 일본 가요 히트차트에 나오는 것도 이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1970~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의 현대문화라고 하면 대중적으로는 요리,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일부의 문학 정도밖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 문학의 보급은 지금도 대폭 늘어났다고 할 수 없으나, 놀라운 일은 지금 일본 방방곡곡의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는 김치를 팔고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는 한국 음식이 없는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비빔밥', '불고기', '갈비'는 이미 'bibinpa', 'purukogi', 'karubi'라는 외래어로 정착되어 있고 '돌솥 비빔밥'은 'isiyaki bibinpa'(lit. 돌 구이 비빔밥)라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hybrid 합성어로 정착되어 있다. 일제 컴퓨터 내부의 '386' CPU에는 미제 상표가 붙어 있는데 그 CPU는 한국제 — 그런 일화도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시를 중심으로 다루는 문예지 '유리이카' 2001년 11월호는 '<한국영화>의 신시대'라는 특집을 엮었다. 지식인들이 읽는 이러한 잡지까지 한국 문화에 대한 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문화적인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일본 국내에서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해마다 커지고 있다. 대학에서의 한국어 수업 수강생 수의 증가는 그 하나의 반영에 불과하다. 이미 일본에서는 한국어는 실천적인 육구의 대상뿐만 아니라 지적인 대상으로서도 폭넓은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⁶⁾

5) 관객 동원 수 120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되는 '쉬리'는 2000년도 흥행 수입이 18억 5000만 엔을 올리며 양화 중 15위를 차지하였다. 한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약간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 '공동경비구역 JSA'와 같은 영화도 2001년의 흥행 수입이 양화 중 27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단법인 일본영화제작자연맹 통계. <http://www.ciren.org/>

6) 후지이[藤井幸之助](1993)에 의하면 1945년에서 1990년까지 일본에서는 500종 이상의 한국어 학습서가 출판되었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아마존 닷컴과 같은 인터넷 서점으로 한국어의 학습서 카테고리를 검색하면 271종이 판매되고 있다. 중국어는 1044종, 불어 484종인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한국어 학습서가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대학의 한국어 교원

2.3.1 교원의 모어

여기에서 증가하는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한국어 교원의 현황을 살펴보자. 국제문화포럼 조사의 한국어 과목 담당 교원 항목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모어별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	207명, 117개 대학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교원	150명, 151개 대학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4:3의 비율로 한국어 모어화자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학습자들은 모어화자 교원에게 접하는 기회가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수의 한국어 모어화자 교원이 존재한다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한국 국내에서 비모어 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지는 것은 좋은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한국어 교원 양성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셈이다.

2.3.2 교원의 신분

다음에는 교원의 신분, 직위에 관해서 살펴보자. 교원의 신분은 전임교원, 시간강사, 계약 기한이 있는 계약직 강사의 3가지 유형이 있다. 국제문화포럼의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되어 있다.

(1) 전임이 없고 시간강사가 1명 있는 대학	약 43%
(2) 전임이 1명 있고 시간강사가 1명 있는 대학	약 20%
(3) 전임이 없고 시간강사가 2명 있는 대학	약 11%
(4) 전임이 1명 있고 시간강사가 없는 대학	약 9%
(5) 전임이 1명 있고 시간강사가 2명 있는 대학	약 5%

조사에 회답한 학교의 전임교원 총수는 105명, 시간강사 총수는 296명, 계약직 강사가 모두 62명이었다. 물론 이것은 연 인원수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몇 개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실제 개별 인원수를 따지면 그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동경외대의 경우를 보면 전임교원이 동북(東北)대, 동경대, 조치(上智)대, 메이지(明治)대, 국제기독교대(ICU), 오사카(大阪)외대, 규슈(九州)대 등, 시간강사로서 타 대학으로 출강하고 있다. 시간강사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3~4개 대학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답을 얻을 수 없었던 대학을 고려할 때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전임교원 총수는 120~140명 정도가 될 것이다. 시간강사와 계약직 강사의 총수는 회답 결과만으로는 총 365명이지만, 회답이 없는 대학까지 고려하면 연 350~500명 정도이며, 여기서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할 경우와 한 명의 비전임교원이 몇 개 대학에 시간강사로 나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실제 인원수는 150~250명 정도로 추측된다.

위의 결과를 보면 한국어 교원의 대다수가 비전임 즉 시간강사 형태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한국어 강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전임교원의 증원이 필수 조건이다. 교원의 이 신분 문제는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2.3.3 교원 전공의 현황

그러나 전임과 비전임의 비율을 따지기에 앞서, 반드시 거론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들의 전공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이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한국어 교육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중 대부분은 — 특히 일본어 모어화자인 경우에 — 역사학, 고고학 등, 한국어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교원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한 이유는, 2000년 동경외대에서 실

시한 비공식적인 조사에서 한국어학이나 한국어교육 전공 전임교원은 일본 전국에 국공립대학 12명, 사립대학 15명, 총 27명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2003년 현재도 한국어학 전공자인 전임교원은 35명 정도로 추측된다.

또 하나 한국어 교원의 전공 분야에 한국어학이나 한국어 교육 전공자가 아주 적다는 추측의 방증이 될 자료를 살펴보자. 일한문화교류기금(The Japan-Korea Cultural Foundation)이 간행한 2001년 10월에 실시한 한국학 연구자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에는 박사과정 이상의 한국학 연구자 1,038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한국·조선어학”에는 89명이 기재되어 있다. 언어학 등 다른 관련 분야를 합쳐도 100명 정도로 추측된다. 한국어학 관련 전공자는 박사과정 학생까지 포함해도 약 100명으로, 한국학 연구자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셈이다.

전임, 비전임을 막론하고 한국어 교육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위의 숫자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학과 한국어 교육의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4 한국어 교원의 조건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국어 교원의 수요와 공급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한 마디로 말해서 교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교원은 많아도 안심하고 수업을 맡길 수 있는 교원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교원 문제야말로 현재 일본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최대 문제중의 하나이다.

일본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모집하는 조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는 박사과정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이 시간강사로 수업을 담당할 수도 있으나, 일본의 대학에서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일반적으로 시간강사로서 채용하지 않는다. 교원과 학생은 확실히 구별되는 것이다. 또한 간행된 논문 3편 이상의 업적이 있음을 시간강사 채용의 최소한의 조건으로 하는 대학이 많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보면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원은 교수법을 비롯한 교육 기술을 익힌 어학 교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구

업적이 있는 연구자라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교수법을 배워도 인쇄된 논문이 없으면 교원의 자격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학력도 과거에는 석사 수료의 자격으로 논문만 있으면 시간강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 앞으로는 박사과정을 마치고 간행된 연구 업적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추세가 점점 강해질 것이다. 단 시간강사 채용에 박사 학위까지 요구하는 대학은 사실상 없다.

이러한 조건을 일본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원의 외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전공 등을 비롯한 내적 조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첫째, 한국어학 내지는 한국어 교육의 전공자, 또는 그러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둘째, 일본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이 두 가지이다.

2.4.1 교원의 조건—한국어학 내지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을 것

우선 첫 번째 조건을 생각해 보자. 한국어 그 자체를 가르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어 그 자체를 객관화, 대상화시켜서 학습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한국어 그 자체에 대한 깊은 언어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언어학적인이라고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음성학, 문법론, 어휘론이 그 핵심을 이룬다. 음성학에서는 특히 조음음성학이 중요하다. 언어장(言語場)⁷⁾을 둘러싼 텍스트론과 담화론에 관한 지식과 관심도 필요하다. 너무나 추상적인 음운론이나 문법론은 학문적으로는 의의가 있어도 교육 실천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국어사에 대한 지식은 중급 이상의 수업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한자와 한자음, 한자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수이다. 일본어 모어화자들에게는 한자음의 한일 대조를 아는 것이 한자어 어휘 학습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이다.⁸⁾ 한국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언어사

7) 언어장(言語場)(linguistic field)이란, 말을 누가 누구를 향해서 어떤 자리에서 하는냐 라는, 언어가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시공간을 말한다. 노마[野間秀樹](1990b:2-4, 2002a:263-264), 가메이[龜井孝]의(1996) 참조. 대우범, 밍(mood), 인칭구조 등과 인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국어 문법 교육이 주목할 필요성을 논의한 노마[野間秀樹](2002c)도 참조.

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어학과 인접된 분야에서는 한국문학과 언어와 관련되는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된다.

단, 여기서 확실히 확인해야 할 것은 문화교육은 언어교육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문화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여 대상화시켜 가르칠 수 있으나, 언어에 대한 지식은 모어화자라는 정도의 지식 밖에 없는 사람과 문화에 대한 지식은 모어화자의 상식 정도밖에 없지만 언어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고 대상화시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할 때, 언어 교육을 위한 교원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후자를 택하는 것이다. 언어를 몰라도 한국 문화에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할 수 있으나 아무리 문화를 깊이 알게 되었고 언어는 언어로서 학습하지 않으면 언어는 영원토록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언어도 문화의 일부'라는 주장은 이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문화 교육은 언어 교육을 지탱해 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언어 교육 그 자체는 아니다.

2.4.2 교원의 조건-일본어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 모어화자의 경우에는 노마[野間秀樹](2002b)에서도 강조하였듯이 일본어를 알고 있다는 점이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것도 의사소통이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어를 깊이 알면 알수록 좋다. 왜냐하면 일본어 모어화자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학습상의 많은 문제는 발음에 관한 문제를 별도로 한다면 '일본어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아니면 '이 한국어는 결국 어떤 일본어에 해당되는 것인가'라는 명제에 귀착되기 때문이다. 발음 이외에 이 두 가지 명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 어디에서나 최종적으로 봉착하는 명제라

8) 한국에서 쉬운 교재는 한자와 한자음에 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본어화자에 대한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자어의 한자 표기는 물론 한자음의 대조에 대해서도 시간을 들여서 강의할 필요가 있다. 이토[伊藤英人](2003)는 한국어 전공 교육에서의 한국 한자음 교육의 실천과 이론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한일 한자음 교재로서는 노마[野間秀樹](2000:224-237)의 '日本語・朝鮮語漢字音對照表'도 참조.

고 할 수 있다. 일본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도대체 뭐라고 하는가 하는 학습자의 질실한 물음. 그리고 이 한국어 문장을 사진을 보면 어렵듯이 알 것 같기도 한데 결국 일본어로 하면 도대체 어떤 표현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 물음은 그 교원 밑에서는 영원토록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교원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물음은 던져져도 네 번째 물음은 없을 것이다. 학습자의 체념과 의욕의 상실로 끝나는 것이다. 애당초부터 학습자의 언어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교원을 도대체 누가 전적으로 믿겠는가?

그리하여 한국어 교원은 학습자의 모어에 대한 깊은 지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일본어 모어화자인 교원과 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러한 팀 형성의 여건은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한국어 모어화자인 교원의 일본어에 대한 깊은 지식이 더욱 더 중요성을 띠는 것이다. 교실에서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됨으로써 일어나는 학습자의 실망, 학습 의욕의 상실 등의 수많은 실례를 보아왔다. 앞으로는 그러한 상황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어휘론 문법론 등 한국어학의 깊은 지식이 필요함은 이미 언급하였다. 사실은 그 지식들이 모두 일본어와 대조적으로 구조화된 지식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재 작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점과 상위점을 모르고 있다면 효율적인 교재는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어 교원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언어학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2.5 한국어 교원의 양성=모어별 교육의 전문가 양성을

적어도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보는 한, 우수한 한국어 교원의 양성은 한국어 교육의 시급한 과제이다. 현재 한국 국내에서 한국어 교원의 양성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러한 교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학은 극히 드물다. 상술했듯이 일본어 모어화자 교원과 팀 티칭을 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여유를 가진 대학은 아주 드물기 때문이다. 한국 국내의 한국어 교원 양성은 하루 빨리 학습자의 모어별 교육의 전문가

양성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한국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직접법만으로 교육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은 현재는 기본적으로 한국 국내에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 내에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의 전망은 어떠한가?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학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일본 국내의 대학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대학원 과정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전공 대학원 과정이 있는 대학은 동경외국어대학과 오사카외국어대학밖에 없다. 언어학이나 한국문화 등 기타 주변적인 전공 대학원 과정으로서 동경대의 대학원 등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동경외대와 오사카외대에서는 한국어 교원의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 다음 3장에서 대학원 과정에 중점을 두어 한국어 교육을 둘러싼 대학원 과정의 중요성과 그 현실을 살펴보자.

3. 일본 대학원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연구

일본의 대학원 교육의 실정은 지금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상세히 논의된 적이 없었다. 여기서는 동경외대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3.1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의 교육과정

동경외대 대학원은 지역문화연구과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통일되어 있다. 박사전기과정이 소위 석사과정에 해당되는 2년 과정이며 박사후기과정이 소위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3년 과정이다. 각 과정은 다음의 코스로 나뉜다.

박사전기과정(석사과정)	언어문화코스
	지역국제코스
	국제커뮤니케이션코스
박사후기과정(박사과정)	언어문화코스
	지역국제코스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코스

박사전기과정(석사과정)은 또 각각 유럽 제1전공(게르만어), 유럽 제2전공(로맨스어), 유럽 제3전공(슬라브어), 아시아 제1전공(중국어, 한국어, 몽고어), 아시아 제2전공(동남 아시아어), 아시아 제3전공(서남 아시아어)으로 나뉜다. 전공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다. 아시아 제일 전공의 정원은 24명이다. 국제커뮤니케이션코스는 개설된 지 현재 2년째인 주로 통역을 양성하는 코스로, 박사후기과정은 없다. 현재는 중국어와 한국어가 주된 언어이다. 박사후기과정은 과정 전체 정원이 27명이다.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 코스에는 아프리카의 언어 등을 비롯하여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에 소속되는 교수가 지도하는 코스이다. 이러한 과정 중 한국어 교원나 한국어 연구자를 지원하는 학생은 박사전기과정(석사과정)에서는 언어문화코스의 아시아 제일 전공, 박사후기과정(박사과정)에서는 언어문화코스에 속하게 된다.

3.2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의 교수 구성

한국어, 한국학 관련 교수진의 구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	노마 히데키[野間秀樹] *	문법론, 어휘론, 한일대조연구
조교수	니와 이즈미[丹羽泉]**	한국종교사회학
	이토 히데토[伊藤英人]*	중세한국어, 한일중대조연구
전임강사	쓰키야시 다쓰히코[月脚達彦]**	한국 근현대사
	남윤진[南潤珍]*	코퍼스언어학, 한국어문법론
	이카라시 고이치[五十嵐孔一]**	한국어문법론, 텍스트언어학
조수	조의성[趙義成]**	한국어문법론, 중세한국어
	이토 지유키[伊藤智ゆき]***	한국어음운론, 한자음연구
재원조교수	신명직[申明直]	한국문학, 한국문화

위의 *로 표시한 3명은 대학원 대조언문정보강좌(對照言文情報講座) 소

속, **표시 4명은 외국어학부 언어·정보강좌(言語·情報講座) 소속, ***표시 1명은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에 소속된다. 일본의 조교수는 한국의 부교수에 상당하고, 전임강사는 한국의 전임강사-조교수에 해당된다. 조수는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동경외대의 경우에는 연구실을 가지고 강의를 담당하는 전임강사에 해당된다. 한국에서 초빙하는 객원 교수 내지는 객원 조교수가 있는데 현재는 문학, 한국문화를 전공하는 조교수가 재직중이다.

이상에서 보듯 현재 6명의 한국어학 관련 교수가 있는 셈인데 일본의 대학 중 이것은 압도적인 교원 수이다. 오사카외대가 한국어학 교수 2명, 객원 교수 1명, 동경대학이 혼고[本郷]와 고마바[駒場] 각 캠퍼스에 각각 1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동경외대에는 이 이외에 외국어학부 소속 일본어학 관련 교수가 7명, 그리고 유학생일본어교육센터 소속 일본어학 교수진이 있다. 일반언어학, 음성학, 개별언어학 관련 교수는 70~8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들은 기본적으로 이 교수들이 개설하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언어학, 언어교육에 관해서는 일본 최대의 연구 환경에서 배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3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의 강의

동경외국어대학의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어학 전공 대학원생의 강의에 대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http://www.tufs.ac.jp/index-j.html> (일본어)

한국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강의 제목으로서는 ‘한일대조언어학 연습’, ‘조선어학 연습(조선어학의 신연구)’, ‘석보상절, 원인석보, 법화경언해 강독’ 등이 있다. 그 이외에 언어학, 음성학, 언어교육, 일본어학 등을 비롯한 방대한 강의 과목에서 대학원생은 자유롭게 선택하게 된다.

동경외대의 한국어 관련 강의 중, 가장 핵심적인 강의는 소위 제미(독일어 Seminar의 약어)라고 부르는 수업이다. 제미는 (1) 학부 3학년생부터 연구생, 한국에서 온 교환유학생, 대학원 박사후기과정 학생까지 함께 참석을 한다, (2) 대학원 교수부터 학부 교수까지 5명이 모두 참석을 하고 시간강사도 참석을 한다, (3) 참석하는 학생은 일본어 모어화자와 한국어 모어화자 양쪽이 존재한다, (4) 발표 논문 작성은 대부분이 일본어나 발표와 토론은 모두 한국어로 진행된다, 이런 점들이 대학원 수업으로서도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업은 각자의 연구를 발표 요지 형식이 아니라 논문 형식으로 작성해 온 것을 매번 180~270분 수업에 2명씩 발표,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름에는 2박 3일의 합숙도 있다.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의 토론에 이어 강사들, 그리고 교수들의 코멘트를 듣는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발표를 통해서 연구 내용은 물론, 발표와 토론의 기본을 배운다. 발표를 요지 형식이 아닌, 논문 형식으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논문을 쓰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이다. 교수 5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도 특징의 하나인데 평소의 지도에서도 제도상의 지도교수와는 상관없이 이른바 '집단지도체'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3.4 학부에서 대학원으로

그럼 동경외대를 지망하는 학생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입학하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기본적으로는 '외국어학부 → 박사전기과정 → 박사후기과정'이라는 단계를 밟게 된다. 각 단계에 소속되는 길도 다양하다. 우선 학부에는 타 대학에서 2, 3학년으로 편입하는 제도가 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한국의 대학에 다니던 학생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다른 대학에서 이미 학부를 마친 학생도 가능하다. 대학원 수험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학부 연구생 제도를 이용한다. 학부 연구생이 되기 위해서는 학부를 졸업해야 한다. 다른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다시 석사를 수험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석사 취득자는 대학원 연구생의 자격으로 연구생을 지낸다. 한국에서 학부나 석사를 마친 한국어 모어화자의 경우 일본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연구생 과정을 밟지 않으면 입학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박사후기과정의 시험은 전기과정의 시험에 비하면 정원수 관계로 상대적으로 좁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3.5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와 인재 양성

근래 2년 동안의 학생들의 발표 테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01년 합숙 발표 논문 제목》

- 1 현대한국어의 동사 관형형 '한'의 연구
- 2 현대한국어의 관형형어미 '-는'의 연구
- 3 부사 '매우', '너무', '아주'에 관한 연구
- 4 일본어의 'tciru'와 한국어의 대응 표현의 대조
- 5 일본어와 한국어의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 6 speech level과 speech level shift에 관한 한일대조연구
- 7 한국어의 피치 패턴(pitch pattern)
- 8 15세기 한국어 문헌에 나타난 격어미 없는 체언의 출현환경에 관한 연구
- 9 1930년대 말 신문소설에 나타난 국어의 특성 고찰
- 10 한일 기계번역 소프트웨어의 평가
- 11 '-을 수 있다' 구문의 통사적 특성
- 12 의미체 이론
- 13 한국어의 '가다', '오다'와 일본어의 'yuku' 'kuru'의 대조
- 14 '-가/-이'와 'ga', '-는/-은'과 'wa'
- 15 일본어의 리듬과 한국인 학습자의 일본어 리듬

《2003년 합숙 발표 논문 제목》

- 1 현대 한국어의 조사 '의'에 관한 연구
 - 2 일본어의 'suru'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표현양상
 - 3 통사론적 관점에서 본 '타다'와 'noru'
 - 4 '를'을 포함한 한국어의 피동문에 관한 연구
 - 5 '-에게', '-한테', '-께'의 연구
 - 6 정주 코리안이 사용하는 한국어에 대한 연구
-

- 7 일본어의 '-noda'와 한국어의 '-것이다'의 대조연구
- 8 '할 수 없다'와 '하지 못하다'의 공통점과 상위점
- 9 '에'와 '내'의 선택양상과 기능
- 10 연변 조선어의 한어 차용어에 대한 연구
- 11 'keredomo'와 '-지만'의 대조연구
- 12 일본어의 'kiru'와 한국어의 절단동사

이것을 보면 실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재미 수업의 발표에서 출발해서 이미 간행되거나, 게재가 결정되어 교정 중에 있는 논문으로는 2002~2003년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모두 일본의 전국적인 학회지에서 심사를 통과한 논문들이다:

- 金珍娥(2002) '日本語と韓国語における談話ストラテジーとしての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일본어와 한국어의 담화 strategy로서의 speech level shift) "朝鮮學報" 第 183輯. pp.51-91(總 41페이지). 天理: 朝鮮學會.
- 金珍娥(2003인쇄 중) 'turn-takingシステムからturn-exchangingシステムへ'(turn-taking 시스템에서 turn-exchanging 시스템으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담화구조-초대면 2자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朝鮮學報" 第 187輯. 天理: 朝鮮學會.
- 나카니시 교코[中西恭子](2002) '現代朝鮮語の連体形語尾-는について -- -고との使い分けという観点から'(현대한국어의 관형사형어미 "-는"에 대하여--"-고"과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朝鮮語研究 1" pp.7-35 總 29페이지. 朝鮮語研究會編. 東京: くろしお出版.
- 나카지마 히토시[中島仁](2002a) '中期朝鮮語の-오-について-連体形の場合-'(중세한국어의 "-오-"에 대하여-관형사형의 경우-) "朝鮮語研究 1" pp.65-107 (總43페이지). 朝鮮語研究會編. 東京: くろしお出版.
- 나카지마 히토시[中島仁](2002b) '現代朝鮮語の動詞の連体形'한'について'(현대한국어 동사의 관형사형 "한"에 대하여) "朝鮮學報" 第 183輯. pp.23-50(總 28페이지). 天理: 朝鮮學會.
- 스카이 요시노리[須賀井義教](2003 인쇄 중) '中期朝鮮語における對格-對格語尾の有無と文の階層構造-、單語結合'(중세한국어의 대격-대격 이미의 유부와 문장의 계층구조, 단어결합-) "朝鮮學報" 第187輯. 天理: 朝鮮學會
- 金恩愛(2003 교정 중) '日本語の名詞志向構造(nominal-oriented structure)と韓国語の

動詞志向構造(verbal-oriented structure)' (일본어의 명사지향구조와 한국어의 동사지향구조) "朝鮮學報" 第188輯. 天理: 朝鮮學會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대학 내부에서 출판되는 논문집에 발표되는 대학원생들의 논고는 많다. 그러나 위의 모든 논고는 각각 일본을 대표하는 학회지에 게재된 것이며 양적으로도 본격적인 논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집필자도 한국어 모어화자, 일본어 모어화자의 양쪽이 있고, 분야별로 보아도 문법론, 담화분석, 표현양상론, 중세한국어연구, 현대한국어연구, 한일대조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 이들은 2002년 동경외대 대학원에 대조언문정보강좌(對照言文情報講座)가 생긴 후의 업적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한국어 관련 연구에서의 동경외대 대학원의 위치를 아주 확고히 만든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가장 큰 한국어학 학회인 조선학회의 학회지 '조선학보'에 과거 15년간 게재된 한국어학 관련 논문의 집필자 출신 대학원을 살펴보면 일본 대학원 중 동경외대 대학원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동경외대가 문자 그대로 타 대학원을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인 표현이 허락된다면 일본의 한국어학 관련 연구의 50%는 동경외대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성과라는 점에서 타 대학원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동경외대가 한국어 연구자, 대학 교원 양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타 대학 연구자들도 이 점을 이해해 주면서 교육에서 아주 큰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시간강사로서 다른 대학 전임 교원이 주로 집중 강의의 형태로 강의를 해 주는 것도 그러한 큰 협조의 하나이다. 근래에도 후지모토[藤本幸夫] 도야마대 교수, 쓰지[辻星兒] 오카야마대 교수, 오고시[生越直樹] 동경대 교수, 후쿠이[福井玲] 동경대 교수, 기시다[岸田文隆] 오사카외대 교수 등이 강의를 담당해 주고 있다. 또한 조희철[曹喜澈], 최은주[崔銀珠], 권재숙[權在淑], 정현숙[鄭玄淑], 송미령[宋美玲], 김진아[金珍娥] 각 강사의 역할도 담당 강의의 질과 양, 양면에서 공헌하는 바가 크다. 또한 위에 든 대학원생들의 논문이 발행된 데에는 유타니[油谷幸利] 도시샤[同志社]대 교수, 마쓰오[松尾勇] 덴리[天理]대 교수의 지도도 받고 있다. 일본 전국

의 각 연구자 간의 이러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도 근래의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학회 활동이나 대규모 한국어 시험 등은 그러한 협조의 산물이다.

또한 한국의 대학 현직 전임 교수 중에서 동경외대 대학원 조선어 전공(일본어 전공을 포함하지 않음)에 유학 경험이 있는 교수는 16명에 달한다는 것도 동경외대 대학원 교육의 큰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3.6 동경외국어대학 대학원의 인재 육성

인재 양성이라는 면에서 대학원을 살펴보자. 동경외대 한국어학 전공자로 석사과정을 마친 자는 1986년에 수료한 시오타[塩田今日子] 현 니쇼학사[二松學舎]대학 교수를 비롯 14명이다. 석사 수료자 중 대학 전임교원은 8명, 대학 강사 2명, 일반 기업 취직 1명,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 3명이다. 전임교원으로 있는 동경외대 출신자를 보면 시오타 교수 이외에 간다외어[神田外語]대학의 하마노우에[浜之上幸] 교수, 호세이[法政]대학의 우치야마[内山正春] 전임강사, 규슈[九州]대학의 무라타[村田寛] 전임강사, 그리고 동경외대의 4명이다. 일본의 한국어 전임교원을 출신별로 보면 대학원은 동경외대, 학부는 오사카외대가 가장 많다.

현재 동경외대 대학원에서는 한국어 교육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어 교육으로 논문을 쓰는 학생이 있음은 물론 한국어학이나 한일대조 언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에게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에 종사할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부 수업에 TA(Teaching Assistant)로서의 대학원생을 기용하는 것도 그 하나이다. 학부 1학년 수업에서 교수 및 다른 대학원생도 참석하고 TA가 수업의 일부를 담당하며 그 수업은 비디오 녹화를 한다.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 녹화된 비디오를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함께 보면서 비판적으로 토론을 한다. 이 비디오 녹화 토론의 효과는 실로 크다. 발성, 발음, 설명은 물론, 판서, 시선, 손짓, 표정, 서 있을 때의 중심 위치에 이르기까지 확실하게 개선된다. 한 마디로 교실 운영의 모든 것들을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TA는

시험 문제 작성의 훈련, 교재 작성의 훈련도 아울러 실천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에게는 안심하고 수업을 맡길 수 있으나 그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안심하고 수업을 맡길 수 없는 것이다.

이번 2003년 3월에 동경외대 박사후기과정을 마친 신입 강사가 현재 동경외대에서 4개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TA 시기의 엄격한 훈련 과정이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다. 김 강사는 와세다[早稻田]대학과 세이케이[成蹊]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3개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평가는 “어떤 대상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내가 들은 모든 강의 중 가장 좋은 수업이었다”(와세다대학 4학년)는 평가를 비롯, 거의 최대급의 평가를 받았다. 바로 이러한 신뢰할 수 있는 교원의 양성이야말로 동경외대가 지향하는 바이다.

동경외대의 한국어 수업은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무기명 학생 평가에서도 지금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년 전에 실시된 부진공(제2, 제3 외국어) 한국어 수업 평가에서는 전체 20여 항목 중 반 이상 항목에서 전 부진공 외국어 과목 중 1, 2위를 차지하였다.

4. 마무리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은 상당히 활발해지는 추세에 있다. 교육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원의 문제이다. 한국어 교원 중 4:3의 비율로 한국어 모어화자가 활약하고 있는데 우수한 한국어 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것도 한국어학, 한국어 교육의 전문교육을 받은 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조언어학적인 깊은 지식을 가진 교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교육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국 국내에서 학습자의 모어별 교육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시일이 걸릴 것이다. 현 단계에서는 일본 대학의 대학원 교육이 초점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동경외대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동경외대의 교육 조건은 일본에서는 최대한 갖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일본에서도 대학, 대학원에서의 한국

어교육의 활성화가 도모되어야 한다.

* 본고를 정리하는 데 尹容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참고문헌

- 간노[菅野裕臣](1988a),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현황”, 한글 제201·202호, 서울: 한글학회.
- 간노[菅野裕臣](1991), “일본에서의 한국어교육”, 새국어생활 1-2,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경기대학교(1996), “외국에서의 한국학 현황과 전망”, 제3회 동아시아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집.
- 구마타니[熊谷明泰](2000), “朝鮮語教育と學習書の現状について－母音解説で見られる問題点を中心として－”, 研究センター報 第26号, 大阪: 關西大學·一般教育等研究センター.
- 김중섭(1999),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權在淑(1995), これからの朝鮮語, 東京: 三修社.
- 남기심 외(199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방법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노마[野間秀樹](1995),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어려운가－”, 말글생활 제3호, 서울: 말글社.
- 노마[野間秀樹](1996a),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란－일본어 화자의 경우”, 語學研究所論集 제1호, 도쿄: 동경외국어대학 어학연구소.
- 노마[野間秀樹](1996b), “198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현대한국어 문법론·어휘론 연구－言語事實主義의 전개－”, 韓國文化 18, 서울: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 노마[野間秀樹](2000), 至福の朝鮮語, 東京: 朝日出版社.
- 노마[野間秀樹](2001a), “한국어 모어화자의 일본어 피치악센트 교육을 위하여”, 韓日語文論叢, 梅田博之教授 古稀記念論叢 刊行委員會編,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2001b),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제13차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발표요지.
- 노마[野間秀樹](2002a),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상관구조, 서울: 태학사.
- 노마[野間秀樹](2002b), “일본어권 한국어 교사의 기본조건”, 국어교육연구 제9집, 서

- 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노마[野間秀樹](2002c), “한국어 문법교육의 새로운 전개를 위하여-특히 일본어 모어화자를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7집,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노마[野間秀樹](2003), “일본어 모어화자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기초 학습어휘 선정과 제시 방법”, 한국어 교육과 학습사건, 서상규,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서울: 한국문화사.
- 우메다[梅田博之](1987), “日本에 있어서의 韓國語研究”, 第1回韓國學國際學術會議論文集, 인천: 仁荷大學校 韓國學研究所.
- 유타니[油谷幸利](2001), “한국어 교재 구성의 기본원리”, 한국어 교재 개발의 원리와 실제,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윤여탁(2001), “外國人을 對象으로 한 韓國語 教育의 諸問題”, 국어교육연구 제8집,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토[伊藤英人](1999), “일본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동경외국어대학의 경우”, 국어교육연구 제6집,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국어교육연구소.
- 이토[伊藤英人](2003), “韓國語專攻 教育에 있어서의 韓國漢字音 教育의 試圖와 그 問題點”, 제195회 朝鮮語研究會 發表要旨, 동경: 朝鮮語研究會.
- 日韓文化交流基金(2002), 日本における韓國・朝鮮研究 研究者ディレクトリ 2001年調査, 東京: 日韓文化交流基金.
- 정광(2001), “해의 한국학 연구의 현황과 그 지원의 효율성 연구”, 이중언어학 제19호, 서울: 이중언어학회.
- 최정순(2003), “교포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문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연구 제6집,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하세가와[長谷川由起子](1995), “日本における朝鮮語教育の現状と展望-一般學生および一般市民を對象とした朝鮮語教育を中心に-”, 外國語・外國文學研究 18, 大阪: 大阪外國語大學大學院修士會.
- 하타노[波田野節子]·朴杞瑤·야마다[山田佳子](2003), “縣立新潟女子短期大學・國際教養學科・韓國語コースの教育課程”, 縣立新潟女子短期大學研究紀要, 新潟: 縣立新潟女子短期大學.
- 후지모토[藤本幸夫](1996), “일본에서의 한국어 연구 현황”, 제5회 국제한국어 학술대회 발표요지, 서울: 한글학회.
- ハングル[한글]能力檢定試驗出題基準檢討委員會(油谷幸利, 朴宰秀, 野間秀樹, 吉喜澈, 吳文淑, 金珍娥) 共編著(2002), ハングル學習の手引き, 東京: ハングル能力檢定協會.
- 후지이[藤井幸之助](1993), “日本語母語話者のための朝鮮語學習用教材・關連圖書目錄”, 阪南論集 第29卷 第1號, 松原: 阪南大學學會.

Kanno, H. et al.(1985), *Korean Studies in Japan. Korea Journal* Vol.25, No.12,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국제문화포럼(The Japan Forum) <http://www.tjf.or.jp>

노마 히데키 교수 연구실 <http://www.tufs.ac.jp/ts/personal/nomahideki/index.shtml>

동경외국어대학(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ttp://www.tufs.ac.jp/index.html> (영어)

<http://www.tufs.ac.jp/index-j.html> (일본어)

동경외국어대학 외국어학부 조선어전공

<http://www.tufs.ac.jp/common/fs/aen/kor/index.html>

조선어연구회(The Society for Korean Linguistics in Japan)

<http://www.tufs.ac.jp/ts/society/tyosengo/>

일한문화교류기금(The Japan-Korea Cultural Foundation) <http://www.jkcf.or.jp>

野間秀樹(Noma Hideki)

東京外國語大學

日本 183-8534 東京都府中市朝日町3-11-1

東京外國語大學 大學院

Tel: +81-42-330-5287

E-mail: noma@tufs.ac.jp

접수일자: 2003. 8. 18.

게재결정: 2003. 9. 2.